

한원진의 리발 부정 방식인 구절주의와 관점주의 비판

—『주자 언론 동이고』에 나오는 4-7 리발-기발 논증을 중심으로—

손영식*

차례

1. 들어가는 말
2. 『맹자』 전체를 보라
3. 한원진의 논증 비판—관점주의와 맥락주의
4. 김태년 선생의 한원진 해설 비판
5. 맺는 말

국문초록

(1) 맹자는 마음에서 대체(大體)와 소체(小體)를 주장한다. 대체는 ‘사덕→사단’으로 나오는 것, 즉 선한 본성이다. 성리학에서는 성즉리라고 하여 본성을 리로 보고, 그 리가 드러난다고 한다. 반면 소체는 몸에서 나오는 감정 욕망이다.

순자는 마음에 식욕과 성욕의 욕망, 혹은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지각을 인정한다. 욕망과 지각은 하나의 근원을 가진다.

맹자는 이원적이라면, 순자는 일원적이다. 이황의 리발-기발 이론은 전형적으로 맹자 이론이다. 기대승과 이이의 일도설은 순자의 이론과 틀이 같다.

(2) 이황은 사덕에서 나온 사단은 선하고, 몸에서 나온 7정은 악으로 호를 수 있다고 한다. 선과 악이 마음의 근원 차이에서 결정된다. 반면 이이-송시열-한원진 계열의 심기학에서는 마음(氣)은 일원체이며, 그 마음의 과불급에 따른 중절(中節) 여부가 정(情)의 선-악을 결정한다고 한다. 중절이라는 결과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면, 그

* 울산대 철학과 교수

근원에는 선악이 없다는 말이며,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선과 악이 정해진다는 말이다. 이는 순자의 성악설과 같은 논리이다.

(3) 한원진은 맹자의 ‘사덕 → 사단’ 이론에 대한 주희의 주석들에서 달랑 한 구절씩, 세 구절만 따온다. 그리고 {중용} 첫머리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도 한 구절만 빼온다(구절주의). 이렇게 뽑은 4개의 구절을 가지고, 이황의 리발설을 부정한다.

한원진에 따르면 마음은 ‘기발리승 일도’ 혹은 ‘성심정의 일원체’이다. 그 하나의 것을 주희가 **보기에 따라**, “4단-리발-기발, 7정-기발-리발, 정-리발-기발”이라 말한다고 한다. 같은 것인데, ‘관점/맥락에 따라’ 리발-기발의 모순되게 말했다는 것이다(관점주의). 그것이 바로 그가 뽑은 4개의 구절이라는 것이다.

(4) 한원진이 뽑은 주희의 말 4개는 일관되게 맹자의 ‘4덕 → 4단’을 지지하는 것이다. 성선설이고, 리발을 뜻한다. 그런데 한원진은 “성=리, 심=기”라는 이이 심기학의 도식을 그 4구절에 적용하여, 서로 모순된 명제로 만든다. 주희를 그 모순에서 구제하는 방법은 관점주의라는 것이다. 구절주의와 관점주의를 동원해서 한원진은 주희를 모순에 빠뜨리면서, 동시에 주희의 이론과는 완전 반대인 심기학의 일원론을 합리화한다.

(5) 한원진의 논증은 조선 후기의 학문의 수준을 보여준다. 모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구절만 뽑아서 관점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리 말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엄밀한 학문의 입장에서는 엄히 부정되어야 할 것들이다.

주제어

사단, 칠정, 리발, 기발, 주희, 한원진, 구절주의, 관점주의, 심기학, 성리학

1. 들어가는 말

한원진은 『주자 언론 동이고』에서, 주희가 “4단은 리의 발이고, 7정은 기의 발이다”라고 말한 것을 부정한다. 주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제자 보광이 잘못 기록했다는 것이다.

주희의 그 말은 47논쟁에서 이황의 호발설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로 지목되었다. 기대승이나 이이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골칫거리인 구절이 기도 했다. 그래서 한원진이 부정한 것이다.

문제는 한원진이 간접 추론을 통해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이다. 보광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한원진은 이이의 철학에 근거해서 보광의 기록이 틀렸다고 논증한다.

필자는 한원진의 논증을 조목조목 비판-반박하는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¹⁾ 김태년 선생이 내 글을 논평하면서, 나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 그의 논평은 크게 보자면, “머릿말, 한원진의 주장 요약 및 설명, 나의 논증 기각, 나에게 권고 사항”으로 되어 있다.

그는 한원진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한원진의 논증이 ‘왜곡된 것’도 ‘무리한 설명’도 없다고 한다. 한원진이 주희의 말 네 개를 인용한 것, 이것이 “말을 왜곡해서 인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원진의 설명은 무리가 없다”(3쪽), “적어도 『주자언론동이고』의 이 부분에서 한원진이 인용해서 펼치는 논리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진다.”(4쪽)²⁾

필자는 김태년 선생의 논평을 비판함으로써, 한원진의 논증을 반박하고자 한다. 47논쟁은 조선 철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한원진의 논증이 맞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구절을 보광의

1) 한국 동양 철학회 132차 정례 발표회, 2007년 4월 27일, 성균관대 수선관.

2) 이하 쪽수는 김태년 선생의 발표문의 것이다.

잘못으로 본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은 진실의 첫걸음이다.

2. 『맹자』 전체를 보라

1) 한 구절만 인용하는 논증

한원진은 리발 부정 논증을 위해서 주희의 말, 4개 구절을 인용한다. 『맹자 집주』 「공손추」 상6, 『중용장구』 1장, 『원형이정설』, 『맹자 집주』 「고자」 상6의 긴 글에서 ‘달랑 한 구절씩’만 뽑아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사단=마음의 용(心之用), 칠정=성의 발현(性之發),
정=마음의 용(心之用), 정=성의 움직임(性之動)

한원진에 따르면, 주희는 문맥-맥락에 따라 저렇게 다르게 말했을 뿐, 사단과 칠정을 구분하지 않고, 다 기발리승(氣發理乘)이라 했다는 것이다. 주희는 보광이 기록한 한 군데 빼고는 모두 4-7 구별없이 말을 했다는 것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단지 한 구절만 뽑아내서 하는 논증을 나는 단장취의(斷章取義) 망문생의(望文生義) 아전인수(我田引水)라 했다. 한원진이 주희의 글을 인용하는 방식이 그러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는 맹자의 주장을 그렇게 왜곡하고 있다.

2) 출처로 보면 호발설

기대승-이이의 주장처럼, 4-7 구별없이 다 ‘기발리승’인가? 아니면, 이황의 말대로 “4단-리발, 7정-기발”인가? 4단과 7정이란 말의 출처를 따

저보면, 이황의 호발설이 바로 나온다.

4단—측은 수오 사양 시비; 도덕적 감정 욕망—『맹자』에 나온다.

7정—喜怒哀懼愛惡欲; 육체적 감정 욕망—『예기』 「예운」, 「악기」

출처로 보아도 도덕적 감정 욕망과 육체적 감정 욕망의 대립은 명확하다. 맹자는 성선설을 설명하면서 4단을 말했다. 선한 본성에서 나온 도덕적 감정 욕망이다. 4단은 키울 대상이다. 반면 『예기』 「예운」, 「악기」에서 말하는 7정은 육체적 감정 욕망이다. 제어하고 조절해야 할 것들이다.

『예기』 전체를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 맹자 이야기와 얼마나 다른지 피부로 느껴야 한다. ‘키울 대상인 4단’과 ‘제어할 대상인 7정’을 같은 종류로 보는 것이 유가적인 발상인가, 생각해야 한다.

4단과 7정을 각각 리발—기발이라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리는 원리 법칙이다. 도덕률이다. 도덕적 감정 욕망은 리에서 발하는 것이 아닌가? 기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다. 사람의 몸도 기이다. 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7정의 육체적 감정 욕망이다. 기발이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유교 전통에 따르면, 4—7은 그렇게 늘 구분되었다. 그것을 주희는 보광에게 “4단—리발, 7정—기발”로 말한 것일 뿐이다.

성리학은 원래 리와 기의 이원론이다. 리와 기 사이에는 늘 대칭성이 있다. “본연지성—기질지성, 도심—인심, 성—정, 형이상—형이하, 미발—이발, 거경—궁리” 등의 대칭성으로 보면, “4단—7정, 리발—기발”의 대칭은 당연하다.

3) 리발의 증거를 가지고 리발을 부정하는 논증에 씀

한원진이 인용한 4개 가운데 3개가 맹자의 ‘4덕→4단’ 관련 부분이다.

주희의 『맹자 집주』와 「원형이정설」에서 각 2개, 1개 인용한 것이 그것이다.

한원진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논증에서, 주희가 4-7을 나누지 않고, 다 기발리승(氣發理乘)이라 했다는 것이다. 기발리승일 뿐, 리발기수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리발은 부정된다.

그렇다면 맹자가 말한 바, ‘본성인 인의예지의 4덕’에서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4단’이 나오는 것이 리발을 부정하고, 호발설을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 따져보자.

맹자가 주장한 선한 본성(性善)은 인의예지의 4덕이다. 이 선한 본성을 성리학은 ‘性卽理’라고 한다. 내 마음에 부여된 리가 바로 나의 본성이다. 따라서 선한 본성인 4덕에서 4단이 나온다는 것은, 성리학으로 말하자면, 성즉리의 리가 발한다는 말이 된다. 이황은 이런 유가적 상식에 바탕해서 리발을 주장했다.

한원진은 ‘4덕 → 4단’에 근거해서 리발을 부정한다. 한원진이 구절주의, 관점주의로 아무리 포장해도 4덕 → 4단은 리의 발(理發)이다. 그런데 그는 정반대로 논증하고 있다. 궤변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리발이 불가능하다면 도대체 4덕에서 4단이 나온다는 것은 뭔가? 성리학의 대전제는 성즉리(性卽理) 아닌가? 성즉리를 따서 ‘성리학’이라 한다. 만약 성즉리의 리가 발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성리학이라 할 수 있는가?

4) 맹자의 이원론과 호발설

맹자는 사람의 마음을 대체(大體)와 소체(小體), 혹은 심지관(心之官) - 이목지관(耳目之官)으로 나눈다. 그에 따라 사람을 대인-소인, 천작(天爵) - 인작(人爵)으로 분류한다. 「고자」 상편에서, 4단 이야기에 이어서 맹자는

바로 다음과 같은 2원적 구분을 역설한다.

대체(大體)－ 심지관(心之官)－대인(大人)－천작(天爵) / 4덕→4단(선한 본성)

소체(小體)－ 이목지관(耳目之官)－소인(小人)－ 인작(人爵) / 육체적 측면

맹자의 마음 이론의 가장 큰 틀은 바로 이런 이분법이다. 선한 본성(性善) 혹은 ‘4덕→4단’은 이 가운데 대체(大體)에 해당되는 것이다. 맹자의 이론이 성선설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마음을 둘로 나누고, 그 하나를 선한 본성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³⁾

맹자는 선한 본성인 대체는 소체와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소체인 마음은 몸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눈과 귀 같은 감각 기관(耳目之官)에서 유래한 욕망 감정이 그것이다.

반면 대체는 개인의 몸이 아닌, 저 하늘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음을 다하면(盡心) 본성을 알고(知性),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知天)” (『진심』 상1)

이 ‘盡心→知性→知天’은 무엇을 뜻하는가?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골똥하게 마음(心之官)을 다해서 생각하면(盡心) 이성의 명령(性命)을 들을 수 있다(知性). 알고 보면, 나의 이성의 명령(性命)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하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이다. 즉 하늘의 명령(天命)이다.(知天)

맹자가 ‘盡心→知性→知天’(마음을 다해 생각함→이성의 명령→하늘의 명령)이라 했던 것을 『주역』 「설괘전」에서는 ‘窮理→盡性→至於命’이라 한다. (마음을 다해 생각해서) 이치를 탐구하고, 본성(이성)을 다하여, (하늘의) 명령에 다다른다는 뜻이다.

3) 양명학－심즉리학이나 심기학이나 다 이 이분법을 무시한다. 그들은 맹자가 4덕－4단을 말할 때 바로 그 부분만 달랑 따와서 논증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중용』 첫머리에서는 반대로 말한다. “天命之謂性，率性之謂道，修道之謂教”가 그것이다. ‘天命→率性→修道’이니,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이성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사람이 사는 올바른 길을 닦는 것이다.

요컨대 맹자는 대체(大體)인 선한 본성의 본질을, 이성의 명령(性命)이면서, 동시에 하늘(하느님)의 명령이라 본 것이다. 하느님은 내 마음 안에 좌정하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명령하는 분이다. 그의 명령이 바로 나의 본성-이성의 명령이다. 그것이 바로 선한 본성이다.

맹자는 명확하게 둘을 구별한다.

소체-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감정 욕망 (生命)
 대체-하늘의 명령에서 나오는 것 (性命=天命)

그 둘은 근원이 다른 것이다.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이 이원론을 주회는 리와 기의 형이상학으로 틀을 잡는다. 그것을 이황은 “사단-리발, 칠정-기발”이라 한 것이다.

맹자가 말한 4단은 대체를 말한다. 선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주로 선한 본성인 대체를 말한다. 그가 4단을 말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다.

결코 한원진이 말하듯이, 4단과 7정의 구분없이 다 기발이라 한 것은 아니다. 맹자는 대체와 소체를 명확하게 나누었다. 하늘에 근원하는 대체, 몸에서 나오는 소체, 이 둘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을 리발-기발이라 형이상학적으로 정의한 것이 성리학이다.

5) 구절 선생 한원진

내가 한원진을 단장취의, 망문생의, 아전인수라 비판했던 것은 이점에서였다.

한원진이 『맹자』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달랑 한 구절씩만 따왔고, 김태년 선생이 그것을 길게 꼭진히 설명해 보았자, ‘대체-본성-4덕-4단-천명’과 ‘소체-이목지관-몸’이라는 이원론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맹자의 도식은 이원론이고, 리발-기발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원진은 맹자의 전체 도식은 말하지 않고, 단지 4덕→4단 부분만 거론한다. 한원진의 이론에 따르면 4단은 7정에 포함된다. 따라서 {4덕→4단}은 {4덕→7정}과 같다고 한다. 4-7을 구분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단장취의이다. 맹자 전체의 구조는 버려 두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구절 하나만 따와서 논증하기 때문이다. 그가 어떻게 말을 해도 ‘4덕→4단’은 리발이지, 기발은 아니다. 그것은 하늘의 명령(天命)에 근원하기 때문이다.

6) 순자의 성악설은 지각설

노파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자. 김태년 선생은 맹자만 이원론이 아니라, 순자도 이원론이라 한다.

본성(性) - 식색(食色) - 천관(天官)
 징지(徵知) - 천군(天君) - 사유하는 능력

이것도 마음을 둘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이원론인가? 물론 아니다. 이 둘은 근원이 같기 때문이다. 둘 다 몸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의 몸의 생리 작용으로서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은 외부 사물을 감각-지각한다. 지각의 결과로 내 마음에 감정과 욕망이 생겨난다. 그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사람은 생각하고 머리를 쥐어짜게 된다. 사유하는 능력이 생겨난다. 요컨대 지각-감정-욕망-사유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이이가 말하는 '心是氣'와 '性心情意 一途'가 바로 그런 것이다. "내 마음이 기이다"-이는 내 마음이 몸의 생리 작용이라는 말이다. 그 작용에는 지각하고 감정 욕망하고, 사유하는 것이 다 포함된다. 하나의 길일 뿐이다. 정원재 교수는 그런 점에서 이이의 철학이 '지각설'이라 규정했다. 심기학(心氣學)은 바로 지각설을 뜻한다.

반면 맹자는 사람의 마음에 '대체-천명(天命)'과 '소체-욕망'을 구분한다. 그 둘은 근원 자체가 다른 것이다. 2원론이다. 반면 순자는 한사코 마음 안에서 선한 본성, 천명(天命)의 존재를 부정한다. 단지 감각 지각하는 마음, 감정 욕망하는 마음만 인정한다. 1원론이다. 이이의 성심정의 일로설이 그런 것이다.

7) 성선설과 성악설의 구분

성선설은 선과 악의 근원이 마음 안에 있다고 한다. 관념론이다. 마음은 선과 악을 만드는 막중한 것이다.

반면 성악설은 선과 악의 근원이 마음 바깥에 있다고 한다. 현실주의자들이다. 바깥에 있는 선악 결정자를 예, 법, 하느님 등 다양하게 말할 수 있다. 예라고 한 사람은 순자, 법은 한비자, 하느님은 묵자이다. 그들은 다른 주장을 하지만, 다 성악설이다. 마음 바깥에 선악 결정자를 인정하고, 마음은 그것에 따라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마음이 만약 바깥에 있는 선악 결정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악으로 흘러가게 된다. 성악설은 그런 의미이다.

맹자는 ‘하늘의 명령’ ‘대체(大體)’를 선한 본성으로 본다. 선의 근원이다. 반면 몸에서 생겨나는 감정 욕망(小體)은 악의 근원이다. 맹자는 마음을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 두 근원으로 나눈다.

그는 선과 악을 마음에서 찾기 때문에, 마음을 2원적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성선설은 필연적으로 마음에 대한 2원론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리발-기발은 바로 그 이원론에서 논리적으로 나오는 구분이다.

반면 성악설은 마음에 대해서 일원론으로 가게 되어 있다. 마음은 그 전체가 외부에 있는 선악 결정자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마음 자체는 그렇게 일원적인 것이다. (물론 외부에 있는 선악 결정자를 따르는 마음, 따르지 않은 마음,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원론은 아니다.) 이이-한원진의 기발리승 일도설, 혹은 성심정의 일도설이 바로 그런 일원론이다.

8) 왜 중절(中節) 이론이 필요한가?

성악설은 논리적으로 중절-부중절 이론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 내 마음은 감정 욕망으로, 그 안에 선-악을 결정하는 것이 없다. 내 바깥에 선악 결정자가 있다. 따라서 내 감정 욕망이 외부의 기준[節]에 맞게 움직이면 중절(中節)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부중절(不中節; 過不及)이 된다.

반면 성선설의 선한 본성은 중절-과불급 이론과 모순된다. 선한 본성이 나오면, 그 자체로 이미 선한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외적 기준에 따라서 절도에 맞는가, 과불급이 있는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외적 기준으로 선악을 따져야 한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것은 선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없다.

만약 본성이 드러난 것-감정 욕망은 반드시 중절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감정 욕망은 선-악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 (백지이다) 라는 말이다. (고자의 백지설이 순자의 성악설로 발전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중절 여부를 따진다. 바로 그 점에서 성악설은 논리적으로 중절 이론을 머금고 있다. 중절 이론은 성악설의 본질이며, 성악설을 판정하는 지표가 된다.

김태년 선생은 한원진을 위해서 이렇게 우려한다.

(한원진처럼 4단과 7정을 구분하지 않으면) 맹자 이래 강조되어온 性善의 원칙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또한 결과의 中節 不中節에 치우쳐 선한 동기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

한원진이 자칫 성선설을 부정할까 걱정하는데, 이는 한원진 철학의 정체를 논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원진의 철학은, 성선을 부정하고, 선한 동기를 부인한다. 리발 부정이 바로 그것이다. 리발을 부정하면 반드시 중절-부중절 이론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마음 안에서 리가 발하지 않으면, 선악 결정자가 없게 된다. 따라서 외부에 있는 절도를 기준으로 삼아 중절과 부중절 여부로 선악을 가릴 수밖에 없다.

한원진이 호락 논쟁에서 비판자들로부터 '순자와 양옹의 무리'라고 지탄을 들은 것은 결코 우려할 것이 아니다. 먼저 한원진의 철학, 나아가 이이-송시열의 심시기(心是氣) 철학의 정체를 파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순자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놓고, 순자의 무리가 될까 노심초사한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3. 한원진의 논증 비판—관점주의와 맥락주의

1)

이렇게 볼 때, 한원진이 논거로 드는 4개 가운데 맹자의 ‘4덕→4단’에 관한 것은 성선설, 리발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4-7 미구분, 혹은 4-7 모두 기발이라는 논증의 재료로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4단과 7정이 나오는 유교 경전의 맥락, 혹은 맹자가 ‘4덕→4단’을 말하는 문맥과 ‘대체-소체’의 이원론,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한다. 그리고 주희의 주석 가운데 한 한 구절씩만 인용한다. 그 네 가지 구절을 가지고 4-7 미구분 및 기발을 이끌어낸다. 이런 것은 논증도 아니다. 속임수에 가깝다. 이는 그가 맹자 철학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 하기 때문에 부리는 만용일 수도 있다.

2)

필자의 한원진 비판에 대해서 김태년 선생은, 한원진이 리발을 부정하는 논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원진은 여기에서 理發 그 자체보다는 사단과 칠정을 나누어 보는 것에 대해 비판을 집중하고 있다.”(2쪽) 한원진은 여기에서 주희가 “4단과 7정을 나누어 말하지 않았다”는 것만 논증했다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 짧은 글에서 ‘4단-리발’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리발 부정에 대해서는 김태년 선생의 권고처럼 한원진의 「退溪集筭疑」를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논증 전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4단-리발, 7정-기발’의 이분법을 논파하는 것이다. 4단이나 7정이나 다 기발이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는 리발 부정이라 보아야 한다.

김태년 선생은 한원진의 이 글이 ‘4단과 7정의 구분’을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원진이 드는 예를 보라.

- ② 사단=마음의 용(心之用)
- ③ 칠정=성의 발현(性之發)
- ④ 정=마음의 용(心之用)
- ⑤ 정=성의 움직임(性之動)

분명히 4단과 7정을 말하는 구절을 따로 인용하고 있다. 이이-송시열-한원진의 기 철학의 공리에 따르면 “심=기, 성=리”이다. 따라서 “4단=心之用=氣發, 7정=性之發=理發”이 된다. 이는 분명히 주희가 4단과 7정을 나누어 말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한원진의 목소리이다.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 4단과 7정의 구분을 부정한 것인가? 원문을 보고 말을 해야 한다.

김태년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情을 어떤 때는 (②, ④처럼) 心에 속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③, ⑤처럼) 性에 속한다고 하기도 하였으니, 특정한 情을 心과 性에 나누어 배속하지 않은 것이 평소의 지론이라고 주장한다. 四端이든 七情이든 가리지 않고, 情을 통틀어 心의 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性의 動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으니, 四七 양자를 나누어 볼 수 없다는 말이다. (2쪽)

②에서는 4단, ③에서는 7정이라 분명히 말했는데도, 김태년 선생은 “四端이든 七情이든 가리지 않고 情을 통틀어 心의 用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性의 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래서 “四七 양자를 나누어 볼 수 없다는 말이다”고 한다.

이것은 원문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한원진의 논증 전략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 한 것이다.

3) 한원진의 논증 전략은 무엇인가?

- ㉠ 4단과 7정, 혹은 정에 대한 주희의 말을 ‘모순에 환원’시킨다.
- ㉡ 그 모순은 ‘기발리승’ 혹은 ‘성심정의 일도설’에 의해서만 해결이 된다.
- ㉢ 모순 해결의 방법은 관점주의이다. ‘기발리승’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모순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한원진은 주희의 말을 의도적으로 뽑아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① 사단=리의 발 (理之發) 칠정=기의 발(氣之發)
- ② 사단=마음의 용(心之用)
- ③ 칠정=성의 발현(性之發)
- ④ 정=마음의 용(心之用)
- ⑤ 정=성의 움직임(性之動)

한원진의 심기학(心氣學)의 기본 공리는 “심=기, 성=리”이다. 이를 ①, ②, ③에 대입하면, “사단=리발, 사단=心之用=기발”이다. 즉 사단은 리발 이면서 기발이다. “칠정=기발, 칠정=性之發=리발”이다. 칠정은 기발이면서 리발이다.

④, ⑤에 따르면 “정=심지용=기발, 정=성지동=리발”, 고로 정은 기발 이면서 리발이다.

요컨대 4단, 7정, 정, 모두 주희는 ‘리발—기발’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주희는 같은 대상에 대해서 모순되게 말한 허접한 철학자라는 것이다. (모순을

범했다는 것은 초보를 떼지 못 했다는 말이다.)

5)

주희가 정말 하나의 대상을 모순되게 말을 했다는 것인가? 그것은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한원진은 주희의 그 많은 말 가운데 달랑 한 구절만 따 오기 때문이다.

① 사단=리의 발(理之發) 칠정=기의 발(氣之發); 맹자가 말한 “大體=心之官=天命”과 “小體=耳目之官”의 대립을 주희는 그렇게 리발-기발의 이분법적으로 말한 것이다. 주희는 맹자의 성선설을 따른다.

② 사단=마음의 용(心之用); 맹자가 ‘4덕→4단’을 말하는 부분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따왔다. 주희의 표현이야 어떻든지 간에, 주희의 주석은 ‘4덕→4단’을 지지하는 것이다. ‘4덕=본성=리’이므로, ‘4덕→4단’은 리발이지, 결코 기발이 아니다.

한원진이 인용하는 바, ‘人之所以爲心’은 心之用이라 할 수 없다. 4단=‘人之所以爲心’=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 즉 4덕이 드러나서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 이런 정도의 뜻이다. 전형적으로 4덕→4단, 즉 리발을 지지하는 구절이다.

③ 칠정=성의 발현(性之發); 『중용』의 첫머리 부분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따왔다. 주희는 ‘天命之謂性’과 ‘喜怒哀樂 未發 謂之中’을 연결시켜서 해석한다. 미발의 中은 天命의 본성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성즉리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즉 리발을 뜻하는 구절이다.

이 경우 회노애락은 7정인가? 그것은 천명에서 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 감정 욕망’이다. 4단과 같은 위상을 갖는다. 따라서 이 부분도 리발을 의미한다.

④ 정=마음의 용(心之用); 주희의 『元亨利貞說』에서 따온 것이다. 주희

는 자연에 ‘원형이정 → 生長收藏’의 관계가 있듯이, 사람의 마음에도 ‘인의예지 → 측은 수오 사양 시비’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 맹자가 말한 ‘4덕 → 4단’은 자연에 근거를 둔 것이란 말이다.

이 또한 ‘4단=리발’을 뜻하는 구절이다. 주희가 ‘情者 心之用也’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발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심기학은 ‘심=기’로 본다.) 4덕이 4단으로 드러남에, 4단은 마음의 움직임이 된다는 정도의 뜻을 心之用이란 표현을 한 것이다.

전체 맥락은 무시하고, 단지 心之用만 따오되, 그것을 자신들의 공식인 ‘심=기’에 넣어서 ‘기발’이라 하는 것은 심한 왜곡에 해당된다.

⑤ 정=성의 움직임(性之動) ; 이 또한 맹자의 4덕 → 4단에 대한 주희의 주석에서 따왔다. 4단이라는 정은 당연히 성의 움직임이 된다.

6) 성리학의 심기학의 공리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주희는 4덕 → 4단을 설명했을 뿐이다. 그 안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그런데 한원진은 주희의 말에서 딱 한 구절씩만 따온다. 그것만으로 주희의 말을 모순으로 만들 수 없다. 그 주희의 말을 “심=기, 성=리”라는 자신들의 공식에 집어넣는다. 그제서야 비로소 주희의 말은 모순이 된다.

이렇게 기를 쓰고 주희의 말을 모순으로 만든 다음 한원진은 이 불쌍한 주희를 구출하는 백기사가 되어 나타난다. 관점주의가 그것이다. 관점주의를 말하기 전에, 이이 이래 전수된 지결(指訣)이자 공리인 “심=기, 성=리”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원진은 일관되게 주장한다. “심=기, 성=리, 정=성+심+리+기”
(7정=氣發理乘)

반면 성리학은 이렇게 본다. “정=기, 성=리, 심=성+정=리+기” (心統性情)

주희는 심통성정(心統性情)이라 해서 ‘심=성+정’이라 한다. 성즉리(性卽理)이므로 ‘성=리’이다. 정은 몸에서 발원한 것이므로 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은 리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 성=리가 발한 것이 4단이고, 몸=기가 발한 것이 7정이 될 것이다.

심기학은 성리학의 이 도식을 뒤엎는다. 성리학이 성과 정을 짝 지우는데 비해서, 심기학은 성과 심을 맞세운다. (호남학의 정체심용, 이이의 심시기 이론이 다 그렇다.) 그리고 리와 기를 성과 심에 배정한다. 성리학이 성과 정에 리와 기를 돌리는 것과 다르다. (주희는 심=기지정상(氣之精爽)이라 했다. 결코 ‘심=기’,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나아가 한원진은 “정=성+심=리+기”라 한다. 이 또한 성리학에서 결코 볼 수 없는 도식이다. 어떻게 심이 정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가?

7)

김태년 선생은 이렇게 서술한다.

한원진은 만약 반드시 心과 性의 用을 구별하려 한다면, 단지 情이 動한 곳에 나아가 “그 氣가 動한 것을 가리켜 心의 用이라 하고, 그 理가 탄 것을 가리켜 性의 用이라 해야지”, 양자를 나누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理와 氣는 각각 發하지 않으며, 心과 性에 각각 用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2쪽)

‘정=성+심=리+기’라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드러난다. 정(情)이 동(動)한 곳에 나가서 심과 성의 용(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심+성’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심통성정을 주장하는 성리학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주장이다.

또한 “그 氣가 動한 것을 가리켜 心の 用이라 하고(氣發), 그 理가 탄 것을 가리켜 性の 用이라 해야지(理乘)”라는 말은 ‘氣發理乘’을 뜻한다. 정(情)은 기가 발하여, 그 리가 올라탄 것이다. 혹은 마음이 움직이고 본성의 리가 올라탄 것이다.

이것은 성심정의(性心情意)의 일원체를 뜻하기도 하다. 하나의 흐름인데, 성, 심, 정, 의(意)의 다른 측면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일원체를 보기에 따라, 관점에 따라, 혹은 맥락에 따라 심이라 하기도 하고, 성이라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8)

문제는 그렇다. 주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인가? 하나의 일원체를 경우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말했다는 것인가? 한원진이 인용한 주희의 말 5개는 일관되게 ‘4덕 → 4단’의 선한 본성이 나오는 것, 즉 리발을 설명한 것이다. 결코 일원체를 보기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말한 것이 아니다.

한원진의 말대로 하면, 주희는 이상한 사람이 된다. 일원체를 그냥 일원체로 설명하면 될 것이지, 경우에 따라, 문맥에 따라 서로 모순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이가 말하는 “심시기, 성즉리, 기발리승, 성심정의 일원체”는 나름대로 일관되고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다.

한원진이 인용하는 주희는 일관되게 설명하는 그 쉬운 방법을 놓아두고, 어디서는 심지용으로, 여기서는 성지동, 저기서는 성지발, 거기서는 심지용 하는 식으로 모순되게 이야기했다. 실제 주희가 그러했다는 말인가?

왜 주희는 이이의 심기학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그렇게 모순되게 말을 해야 했는가? 그것은 한원진이 주희의 말을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주희가 결코 그렇게 모순되게 말한 것은 아니다. 한원진은 자신의 학설에 주희를 껴

어 맞추다 보니, 주희를 초라한 인간으로 만든다.

9) 관점주의와 맥락(문맥)

내가 관점주의라 했던 것을 김태년 선생은 ‘맥락(문맥)’이라 한다.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주희가 그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걸 굳이 시비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설명하다 보면,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다르게 서술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문맥이고 맥락이냐는 것이다.

내가 문제로 삼은 것은 ‘모순’이다. 과연 문맥과 맥락이 되면, 모순되게 말해도 된다는 것인가? 반대로 말해서 문맥과 맥락이라면, 모순도 합리화될 수 있냐는 것이다.⁴⁾

논리학에 따르면 모순은 둘 가운데 하나만 맞게 되어 있다. 둘 다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단지 문맥 맥락이라는 말 하나만 하면, 모순을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가? 나는 이런 식의 논리를 본 적이 없다. 모순은 모순이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이다.

한원진의 전략은 주희의 말을 모순에 끌어넣고, 그것을 문맥-맥락으로 처리하면서, ‘기발리승 성심정의 일원체’를 증명하는 것이다. 위에서 이미 설명했던 것처럼 4단이 리발이며 기발일 수 있는가? 문맥과 맥락이면 리발이라 했다가 기발이라 해도 되는가? 7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모순되게 말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4) 원효가 말한 화쟁도 사실은 그런 맥락-문맥 이론일 수 있다.

10)

조선 후기 성리학의 수준이 초라해진 이유는 바로 그 점에 있다. 한원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모순이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한다. 모순을 그렇게 쉽게 용납하면, 그들에게서 더 이상 치밀하고 정교한 논의를 바랄 수 없다. 그것은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대충 대충 아무렇게나 지껄인 수준이 된다.

문제는 조선 후기의 그런 어리숙한 이야기를 요즘 연구자들이 그대로 이어받는다. 젊은 연구자들도 아무런 문제 의식없이 관점주의를 그대로 따른다.

한원진은 전형적으로 관점주의자이다. 모순을 관점으로 맥락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

주희의 원문을 보면, 주희는 결코 그런 식의 모순을 문맥에 따라 흘리고 다닌 적이 없다. 주희가 육구연 진량 등과 논쟁한 것을 보면, 그는 아주 엄격한 논리적 사유를 하고 있다. 한원진이 말하는 것처럼 영성한 맥락과 문맥으로 말한 실없는 사람이 아니다.

11) 물귀신 논리

김태년 선생은 이렇게 반론한다.

관점주의가 관점에 따라 달리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황은 또는 朱熹는 관점주의에서 자유로운가? “主理而言, 主氣而言” “在理上看, 在物上看” “橫說 豎說” “合看 離看” “渾淪 分開” 등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4쪽)

이이뿐만 아니라, 이황과 주희도 관점주의에서 자유롭지 않다면, 관점주의는 정당하다는 것인가? 모두 다 쓰면 논리적으로 정당한 방법인가? 김태년

선생은 논리가 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논리는 쓰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른 방법을 뜻하지 않는다.

이황과 주희가 관점주의에 따라 말을 했다면, 그 부분은 마땅히 논리적으로 따지고 비판해야 한다.

수사학이라면, 표현 방법이라면 관점주의가 문제가 될 것 없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논증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것의 논리성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주자 인론 동이고』는 소설책이 아니다. 그것은 반대파의 주장을 비판하는 철학책이다. 그렇다면 그가 사용하는 관점주의가 논리에 맞는지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물론 주희도 이황도 이이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원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단=리발=기발’ ‘7정=기발=리발’ 하는 식으로 모순되게 말을 했다면, 그런 것까지 문맥으로 해석하고 용납될 수 있는가? 모순 형용법(oxymoron)이라는 표현법이 있다. 표현법으로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철학 이론을 전개하면서, 모순을 아무렇게나 늘어놓고, 문맥이네, 맥락이네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가?

12) 이황과 주희가 말한 바 “主理而言, 主氣而言” “在理上看, 在物上看” “橫說 豎說” “合看 離看” “渾淪 分開”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 바란다. 도대체 그들이 그런 식의 말을 통해서 모순을 늘어놓고, 모순을 합리화시켰는가?

모순을 심어놓고, 문맥과 관점으로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은 이이 학파에 대물림되어 온 초식이다. 이이는 심기학이다. 그것은 결코 성리학이 아니다. 그런 심기학이 성리학인 것처럼 꾸미는 방법이 바로 그 관점주의이다. ‘심기학+성리학’—이것은 서로 모순되거나 부정합하는 것이다. 그 둘을 붙여서 모순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많은 주장들을 다 모아놓고, 심기학 이론을 관점에 따라 문맥에 따라 다르게 말한 것이라 한다. 주희의 글이나 이론에서

심기학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말을 하겠는가? 결국 주희의 말을 자신들의 심기학 이론에 붙이는 손쉬운 방법이 바로 관점주의이고, 문맥론이다. 심기학 이론을 주희가 이 맥락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저 관점에서는 저렇게 말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한원진이 좇어섬기고 있다.

주희나 이황은 결코 그런 구차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4. 김태년 선생의 한원진 해설 비판

1)

김태년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四端一心之用(『孟子集註』「公孫丑上」6)

“人之所以爲心이 이 네 가지(四端)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기반으로 “四端을 心之用이라 했다”고 해석했다. 『孟子集註』의 원문은 “사람이 그로써 마음으로 삼는 것(사람에게 그로써 마음이 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惻隱之心을 논하면서 나머지를 모두 다 들어 사람이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라 부를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것이 반드시 있음을 밝힌 것이다.”라는 문장이다. 즉 이 문장은 맹자가 앞에서 惻隱之心만 설명했으면서 왜 뒤에서는 四端을 다 들어서 말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한원진은 이 문장에서 “人之所以爲心=四端”의 논리를 추출했고 “四端=心之用”이라 해석했다. 일반적으로 주자학에서, 그리고 당연히 한원진도 心의 體는 性이고 心의 用은 情으로 설명한다.

한편 한원진은 사람의 마음이 四端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을 다른 곳에서 四端과 七情은 근원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근거로 활용한다.

사람의 마음은 四端으로도 七情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四端이나 七情이냐”가 아니라 “中節이나 不中節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2쪽)

① ‘人之所以爲心’을 한원진이 잘못 해석해서 ‘심지용(心之用)’이라 했다는 나의 논증에 대해서 김태년 선생은 대답이 없다. ‘人之所以爲心’은 ‘사람이 마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라 번역해야 한다. 따라서 ‘심지용(心之用)’이라 할 수 없다.

주희는 “4덕이 나와서 4단으로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뜻으로 “人之所以爲心=4단”이라 했다. “4덕=성, 4단=정”이므로, 心統性情이란 말이다.

② “한원진도 心の體는 性이고 心の用은 情으로 설명한다.”—이 말은 한원진이 신봉하는 ‘심=기, 성=리’, ‘정=기발리승’과 어긋난다. 김태년 선생이 말한 ‘심체=성, 심용=정’은 ‘심=성+정’이니, 한원진의 ‘정=심+성=기+리=기발리승’과 모순된다. 전자는 심의 일부분이 정이고, 후자는 정 일부분이 심이다.

이런 모순에 대해서 김태년 선생은 답을 해야 한다. 물론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그렇게 말해도 된다는 관점주의는 빼고 설명하기 바란다.

③ 한원진은 “사람의 마음이 四端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주희의 말을 문자 그대로 들이대서, 마음은 오직 4단 뿐이며, 7정은 감정의 전체이기 때문에, 4단과 7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다. 이것은 맹자의 문맥과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맹자는 대체-소체를 나눈다. 4단은 대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4단이 전부 아니다.

왜 문맥주의자들이 맹자의 문맥에 어두운 것일까?

④ 김태년 선생은 말한다. “사람의 마음은 四端으로도 七情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四端이냐 七情이냐”가 아니라 “中節이냐 不中節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중절-부중절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성악설이다. 성선설은 내 안에 선의 근원과 악의 근원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따라서 4단, 7정을 나누게 된다.

반면 성악설에서 마음은 지각-감각-육망하는 일원체이다. (이이가 말하는 心是氣이다.) 그것이 외부의 기준에 따라 중절하면 선, 부중절하면 악이다.

만약 선한 본성이 드러난 것이라면, 외부 기준에 의한 중절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자체로 선하다. 외부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중절)에 따라 선악이 결정된다면, 내 마음에 선한 본성이 없다는 말이 된다.

성악설은 사람의 마음을 과불급이 없는 상태, 중절한 상태로 만들려 한다. 과불급의 기준은 외부의 도덕률 같은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四端으로도 七情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四端이나 七情이냐”가 아니라 “中節이나 不中節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김태년 선생의 말은 성악설을 선언하는 것이다.

맹자가 4덕-4단을 말하는 것은 성선설을 선포하는 자리이다. 그것을 놓고 한원진이 ‘중절-부중절’로 말했다고 김태년 선생은 말한다. 물론 한원진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바로 그 점에서 한원진의 문맥-맥락주의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 주고 있다. 성선설을 성악설로 만드는 흑마술이 바로 그것이다.

2)

김태년 선생은 말한다.

七情-性之發(『中庸章句』)

원래 문장은 “喜怒哀樂은 情이고 그것이 未發하면 곧 性이다.”이다. 이는 바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기 때문에 中이라 한다.”는 문장으로 이어진다. 朱熹의 의도는 喜怒哀樂의 情이 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없고, 그에 따라 未發은 中이라는 것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한원진은 이를 기반으로 “七情을 性之發이라 했다”고 주장한다. 情이 未發한 것이 性이라 했으니 情인 喜怒哀樂 등의 七情은 그 性이 發한 것이라는 말이다.

물론 한원진에게 性이 發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도덕적 본성이 '발현'한다는 의미이고 '氣發理乘一途說'에 비추어보면 '理乘'하는 것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七情도 四端과 마찬가지로 '性發爲情'한 것이라 하여 四端과 七情의 所從來 구분을 비판한다. 덧붙이자면 한원진에게 情은 四端일 수도, 七情일 수도, 四情(喜怒哀樂)일 수도 있다. 그런 그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2쪽)

① 한원진은 “희노애락이 성에서 발한 것”을 “七情은 性之發”이라 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희노애락은 7정이 아니라 4정이다. 나아가 喜=樂이므로 3정에 불과하다. (『예기』 「예운」편에는 喜怒哀懼愛惡欲이라 하여, 喜怒哀樂과 달리 말한다.)—뭐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원진이 모순에 둔감하다는 것이다.

② 3정이든 7정이든 간에, “그 性이 發한 것”이 희노애락이라 한다. 문제는 이렇다. 이이—한원진은 '性=理' (性卽理)이라 한다. 따라서 “性發=理發”이 된다. 그러나 이이 이래 송시열 한원진은 性發은 주장하면서, 理發을 부정한다. 이것은 모순이다.

한원진은 리발은 절대로 안 된다고 평소 주장해 놓고, 여기에서는 태연하게 性發(=理發)을 주장한다. 김태년 선생도 아무렇지 않게 性發爲情을 말한다. 그의 사유에 따르면, 성발은 氣發理乘의 理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우리 머리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리발 부정해 놓고, 리승은 된다는 말인가? 도대체 말하지도 않는 리가 어떻게 승(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요술이 궁금하다.

이 모순도 문맥으로 합리화되는 것인가? 문맥만 잘 맞추면, 발하지 못하는 리가 승(乘)하는 모순도 가능하다는 것인가?

③ 이이—송시열을 따라 한원진도, 기인 마음이 본성의 리를 드러내 준다고 한다. 리는 스스로 발하는 것이 아니다. 리(理)는 마음(氣)에 의해서 발

해지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은 기이다. 그 기가 리를 발현시켜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

리발(理發)이 아니라, 기발리(氣發理) 라는 것, 그것을 이이-송시열-한원진은 기발리승(氣發理乘)이라 한다. 요컨대 기인 마음이 리를 인식해서, 리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다. 기가 리를 태우는 것(氣乘理)이다. 리는 오직 그런 방식으로만 드러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그는 리가 기에 올라타는 것(理乘氣)이라 한다. 이런 것도 올라타는 것(乘)이라 하는가? 리가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태워지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이이 학파는 '리가 발해지는 것' '리가 태워지는 것'을 理發, 理乘이라 한다. 그들은 논리적 모순에만 무신경한 것이 아니라, 한문 문법에도 거칠다. 도대체 기가 리를 드러내 주는 것(氣發理), 이게 어떻게 理乘이 되는가?

④ “한원진에게 情은, 四端일 수도, 七情일 수도, 四情(喜怒哀樂)일 수도 있다. 그건 그에게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김태년 선생은 이렇게 말한다. 물론 한원진이 그러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유교 경전의 맥락에서 벗어나는가 이다. 4단은 맹자가 선한 본성을 말할 때 힘 주어 외친 것이다. 반면 7정은 『예기』에 나오며, 절제하고 통제해야 할 감정 욕망을 뜻한다. 4단은 키워야 할 선한 본성의 싹이다. 도덕적 감정 욕망이다. 반면 7정은 통제해야 할 육체적 감정 욕망이다.

그런데 그게 그리 중요한 구분이 아닌가? 도덕적 감정 욕망과 육체적 감정 욕망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유교가 강조하는 윤리 도덕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바로 그 점에서 한원진은 전형적으로 성악설의 입장에 선다. 사람의 마음

은 단지 식욕·성욕 같은 욕구·욕망 충동일 뿐이다. 내 마음에 선한 본성의 짝은 없다. 그것은 외적인 규범으로 제어해야 한다.

그리고 이점에서 한원진은 주희의 이론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다. 주희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한다. 선한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성발(性發)이 바로 리발(理發)이다.

3)

김태년 선생은 진술한다.

情一心之用(「元亨利貞說」)

원래 문장은 “性은 心の 理이고 情은 心の 用이며 心은 性情의 主이다”이며 이는 ‘仁義禮智(性)’와 ‘四端(情)’과 ‘仁으로 아끼고 義로 미워하고 禮로 미루어주고 智로 아는 것(心)’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원진은 여기에서 情은 心の 用이라는 설명을 따왔다. 한원진이 뒤에서 한 설명을 고려하면 四端은 情이며 이 情은 心の 用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밝히자면 한원진은 다른 곳에서 心統性情을 다만 性+情=心(心包性情)의 의미일 뿐 아니라 ‘統御’ ‘主宰’의 의미로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맥락에서 이 부분을 인용했다. (2-3쪽)

① 이 부분은 왜곡의 백미이다.

주희는 「원형이정설」에서 분명히 ‘4덕 → 4단’을 “性은 心の 理이고, 情은 心の 用이며, 心은 性情의 主이다”라고 했다. 마음 속의 리인 성이 4단의 정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 문맥에서 ‘마음의 작용(心之用)’이란 성(性)인 4덕이 4단으로 드러나서 마음의 작용을 이룬다는 정도의 뜻이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리발(理發)을 뜻하는 구절이다. ‘본성=리’이기 때문에, 본성이 드러남은 리가 드러남이다.

그런데 한원진은 원형이정설의 하고 많은 구절 가운데 단 하나 ‘정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만 따온다. 그리고 주희는 ‘情=心之用’이라 했다고 한다. 한원진의 심기학에 따르면 ‘심=기, 성=리’이다. 따라서 ‘情=心之用=氣發’이 된다.

어떻게 리발이 눈 깜짝할 사이에 기발이 되는가? 4덕이 4단으로 나오는 것이 리발이 아니라 기발이라 하는 이 억지-이것도 문맥과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② 모순에 대한 불감증

김태년 선생은 한원진이 心統性情, 心包性情을 말해서 ‘性+情=心’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원진의 논증을 보라. 그는 주희의 말을 “4단, 7정, 정=리발이면서 기발”의 모순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기발리승, 성심정의’ 일원체를 관점주의로 해석하는 것을 제시한다.

그 일원체를 한원진은 이렇게 말한다.(김태년 선생의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자.)

한원진은 만약 반드시 心과 性의 用을 구별하려 한다면 단지 情이 動한 곳에 나아가 그 氣가 動한 것을 가리켜 心의 用이라 하고 그 理가 탄 것을 가리켜 性의 用이라 해야지 양자를 나누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1쪽)

정이 움직인 곳에서 기가 동한 것, 리가 탄 것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정=심+성=기+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태년 선생은 태연하게 말한다. 한원진은 다른 곳에서 ‘심=성+정’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원진은 ‘정=심+성’이라 하고, 또 ‘심=성

+정'이라 했다는 것이다.

한원진이 이렇게 모순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김태년 선생은 전혀 자각하지 못 하는 것 같다. 물론 김선생에게는 마법의 검이 있다. '문맥과 맥락'이 그것이다. 문맥과 맥락이면, '정=심+성'이다가, 또 '심=성+정'이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가?

4)

김태년 선생은 적는다.

情一性之動(『孟子集註』, 「告子上」 6)

『孟子集註』의 원문은 “情은 性의 動이다, 사람의 情은 원래 다만 선하게 될 수 있고 악하게 될 수는 없으니, 性이 본래 선함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선한 이와 악한 이를 보면 性이 선하거나 불선할 수 있지 않냐는 公都子의 질문에 대한, (...) 사람이 원래 타고난 본성은 선하고, 악한 것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그 본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맹자의 답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한원진은 “情은 性의 動이다”라는 말을 “情을 性의 動이라 했다”고 인용했다.(3쪽)

맹자가 말한 '정(情)'이란 앞 뒤의 문맥으로 보면 4단을 의미한다. 결코 7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情)은 사람이 타고난 선할 가능성이다. 단(端; 싹)이므로 그가 키우면 선하고, 키우지 못 하면 선할 수 없다는 정도의 뜻이다.

그러나 우리의 한원진은 늘 하듯이 단 한 구절을 따와서 마치 정의 전체인 7정은 성(性)의 동(動)이라고 맹자, 그리고 주희가 말한 것처럼 인용하고 있다. 한원진의 이런 식의 인용은 단장취의, 망문생의를 넘어서서, 자질의 문

제인 것 같다.

5)

이상에서 한원진이 인용한 주희의 말에 대한 김태년 선생의 설명을 검토해 보았다.

김선생은 그런 검토 뒤에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이상과 같이 볼 때 말을 왜곡해서 인용한 것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그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한원진은 이렇게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 이유를 '맥락'으로 설명한다. 朱熹가 "情을 말하면서 心을 계기로 말할 때에는 心의 用이라고 情을 설명하고 性을 계기로 말할 때에는 性의 動이라고 情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朱熹가 情을 心之用 혹은 心之發로 설명한 것은 (2)와 (4)이고, 性之發 혹은 性之動으로 설명한 것은 (3)과 (5)이다. 그리고 그 맥락은 모두 한원진이 말한 것처럼 하나는 心이 계기가 되어 말한 것이고 하나는 性이 계기가 되어 말한 것이다. (2)는 四端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고 (4)는 心을 중심으로 性·情과 心의 관계(心主性情)를 설명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며, (3)은 未發과 性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고 (5)는 性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원진의 설명은 무리가 없다. (3쪽)

한원진이 왜곡해서 인용한 것이 없다. 그 인용문을 가지고 한원진이 한 논증도 무리가 없다. — 이것이 김태년 선생의 결론이다. 그가 늘 보아왔던 한원진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한원진은 맹자의 성선설, 주희의 성즉리 이론의 전체 맥락은 다 무시하고, 단장취의했다. 그런데도 김태년 선생은 나아가 한원진이 한 구절씩 따와서 주희의 말을 모순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맥락—문맥이라는 것이다. 맥락이 그

러하면 모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내가 볼 때, 한원진이 단장취의했던 네 구절은 맥락으로 넘어가기에는 완전히 모순이 되는 것이다. 모순도 맥락 앞에서는 녹아 없어지는가?

철학의 수준은 얼마나 논리적 사유를 하느냐에 결정된다. 조선 후기의 학자들의 논리적 수준을 한원진의 글에서 알 수 있다. 문제는 한원진 시대의 논증 수준을 아직도 그대로 인정하고 인용한다는 것이다.

6)

김태년 선생은 한원진의 논증 의도를 이렇게 풀이한다.

四端과 七情을 각각 性과 心, 理와 氣로 분속하려는 시도를 막고 情意·計度·造作이 없는 理가 '發動'하여 理와 氣의 구분이 흐려지는 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는 율곡학과의 중지인 “心是氣, 性卽理”와 “氣發理乘一途”의 원칙을 수호하려는 것이기도 하다.(이것은 한원진이 고수하는 원칙이며 그는 이것이 흔들리면 性과 心, 理와 氣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원칙을 훼손시킨다면 이황이든 이이든 송시열이든 김창협이든 모두 비판했다.) (3쪽)

① 이미 지적했듯이, 한원진의 의도는 모순이 된다. 리와 기의 분속을 막으면서 어떻게 리와 기의 구분이 흐려지는 것을 방지하는가? 그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이황은 “4단=리발, 7정=기발”이라 하여 리와 기를 명백하게 구분했다. 이 이상 더 어떻게 리와 기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반면 이이-한원진은 리발을 부정하고, 오직 ‘氣發理乘’ 하나만 인정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리와 기의 구분이 흐려지는 사태를 막는 유일한 길인가?

물론 한원진을 위해서 우호적으로 해석해 줄 수 있다. 한원진은 ‘리-불

발, 기-발', 이렇게 해야 리와 기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항처럼 '리-발, 기-발', 이렇게 말하면, 둘 다 발하게 되고, 발(發)이라는 측면에서 리와 기의 구분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리이던 기이던 간에 발(發)하면 서로 같아져서 구분이 흐려지는가? 한원진은 실체와 속성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 리와 기는 실체이고, 발(發)은 그것의 속성이다. 근원적인 구분은 실체를 가지고 하지, 속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발(發)이 같다고 실체 구분이 흐려지는가?

내가 「존재 물음에 내몰린 퇴계학, 겨우 존재하는 리」라는 논문에서 이미 밝혔듯이, 리발의 발과 기발의 발은 엄연히 서로 다른 뜻이다. 리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다. 형이상의 리는 원리 법칙 같은 것이다. 반면 형이하의 기는 사물을 이루는 재료이다. 원리 법칙이 발하는 것과, 돌맹이가 발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여기에서도 한원진의 형이상학적 사유의 수준을 볼 수 있다. 형이상의 리를 돌맹이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다.

② 한원진은 “心是氣, 性卽理”와 “氣發理乘一途”의 원칙이 흔들리면, 성과心, 理와 氣의 구분이 흐려진다고 생각했다. - 김태년 선생의 말이니까 맞을 것이다.

“心是氣, 性卽理”와 “氣發理乘一途”는 심기학의 기본 공리이다. 그것은 성리학이 아니다. 성리학은 ‘心統性情, 性卽理’와 ‘기발-리발’을 주장한다. 성리학은 마음의 두 구성 요소를 성과 정이라 한다. 성=리, 정=기이다. 따라서 마음=리+기이다. 나아가 성리학은 이원론이므로, 리와 기의 이원성(대칭성)을 기본으로 한다. 성-정, 본연-기질, 도심-인심, 4단-7정, 형이상-형이하, 미발-이발, 거경-궁리 등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리발-기발은 기본적인 것이다.

반면 이이는 “심=기, 성=리, 정=리+기”로 본다. 이것은 성리학의 틀과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은 기발리승, 성심정의 일원체에 근거한다. 일원론이다. 따라서 이원성(대칭성)을 부정한다. 리발을 부정하고 기발만 인정하는 것도 심기학의 논리에서 필연적으로 나온다.

심기학을 정원재 선생은 지각설이라 한다. “마음을 기라고 한다”(心是氣)는 점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 심기학이다. 심기학의 중요한 특징은 성과 정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과 심을 대비시킨다. (자세한 것은 필자의 『성리학의 형이상학 시론』을 보라.)

5. 맺는 말

한원진의 논증을 분석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할 수 있다.

1) 맹자 성선설은 이분법인 반면, 순자의 성악설은 일원론이다. 이황의 리발-기발의 호발설은 맹자의 대체(大體)-소체(小體)의 이원적 구조와 같다. 이이의 기발 일도설, 혹은 성심정의 일도설은 순자의 일원적인 마음 이론과 구조가 같다.

한원진은 순자 식의 일원론에 근거하면서, 맹자의 이원적인 마음 이론에 근거해서, 이황의 이원적 이론을 부정한다. 그의 논증이 왜 틀렸는지는 자명하다.

2) 맹자는 마음을 대체와 소체로 구분한다. ‘대체-성선(性善)-천명(天命)’은 ‘4덕→4단’으로 드러난다. 한원진은 맹자의 마음 이론에 소체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 한다. 단지 대체 부분을 가지고 논증한다.

3) 맹자가 ‘4단→4덕’을 말한 것, 그것을 주희가 주석한 것은 모두 다 성선설이다. 리발에 해당된다. 그것을 가지고, 한원진은 이황의 리발설을 부정하고, 이이의 기발리승 일원체, 성심정의 일원체를 증명한다. 리발을 가지

고 리발을 부정하고, 기발을 긍정하는 것—이것이 한원진의 논증의 구조이다.

4) 한원진의 논증 방법은 구절주의와 관점주의이다. 구절주의—그는 주희의 말에서 한 구절씩 따와서, 그것들을 서로 모순되거나 부정합하는 명제들로 만든다. 관점주의—모순과 부정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원체를 ‘관점에 따라 주희가 다르게 보았다’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절주의와 관점주의는 논리학으로 볼 때, 영성한 오류에 해당된다. 한원진의 논증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 철학계의 수준을 볼 수 있다.

Abstract

Critique of Hahn Wonjin's Paragraphism & Viewpointism
(by which he argued against manifestation of li.)

Son, Young-Sick

Hahn Wonjin wrote "Investigation of the alike & unlike of Zhuxi's statements", he denied Zhuxi's proposition "The Four Beginnings (of the sense)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1) He picked up four phrases from Zhuxi's statements, cutting off the head and tail.

(2) Into four phrases, he put in Yi Yi's formulae—"Mind is material force(qi)", "Nature is principle(li)", "The Principle is universal, material force limits (the principle)".

(3) As a result, Zhuxi's four phrases are contradictory.—"The Four Beginnings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and of material force (qi); while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and of principle(li)."

(4) Hahn resolved the contradiction with 'viewpointism'; according to the standpoint or viewpoint, Zhuxi made the contradictive statements.

(5) Hahn asserted that Zhuxi didn't say that "the Four Beginnings are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the Seven Passions are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but Zhuxi said contradictorily according to cases or standpoints.

(6) Hahn denied Zhuxi's proposition Li-fa(理發).

Hahn's arguments are false in every parts ;

① His picking up four phrases are a kind of drawing water to his own mill. Four phrases all mean that "four Beginnings of the sense(四端) spring from Four virtues(四德)", that is,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② Yi Yi's formulae belongs to the school of mind-matter(心氣學). The

formulae of nature-principle school(性理學) are “Nature is principle (li)”, “Feelings are qi”, “mind=nature+feelings=li+qi”.

- ③ Zhuxi’s four phrases which Hahn picked up are not contradictory. Four all mean that “four Beginnings of the sense(四端) spring from Four virtues(四德)”, that is,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 ④ Standpoint, viewpoint, or viewpointism can never justify the contradictions.

Key Word

the Four Beginnings (of the sense), the Seven Passions, the manifestation of principle(li), the manifestation of material force(qi), Zhuxi, Hahn Wonjin, paragraphism, viewpointism, the school of mind-matter, the school of nature-principle.

- 논문투고일 : 2007.11.06. 심사시작일 : 2008.01.17. 심사완료일 : 2008.01.27.

